제 989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10년 12 월 26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고별사

낮이나 밤이나

인생의 길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장구하지 않은 것처럼 밤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에 오미(五味)가 있듯이 인간 일생에는 희비애락이 교차됩니다.
그러므로 낮의 오만과 밤의 비탄을 둘 다 삼가야 합니다.
모름지기 낮에는 밤을 생각하고 밤에는 새벽을 내다보는 슬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0평생을 돌이켜 보니 내 인생도 파란만장의 세월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6.25한국전쟁과 4.19, 5.16을 거쳐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심한 혁명적 변화가 있던 격동기에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렁에 빠졌던 일도 있었고 산악 정상에서 환호성을 칠 수 있었던 흑백이 교차되면서 심한 굴곡의 생애를 돌이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날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을 살 수 있다면 지나온 그 길대로 살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낮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밤을 지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시74:16)

인생의 길에는 낮과 밤이 모두 유익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지난 20여년은 가혹하리만큼 아픔도 있었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가장 찬란한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두터운 벽 앞에 앉아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내며 엉엉 울던 때도 있었고 가슴에 피를 말리면서 짜낸 설교를 토해내었지만 미속한 지진아처럼 변화 없던 이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격과 감사는 무엇으로도 형언키 어려운 환희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협력해 주어야 할 분이 자리만 차지하고 협조적 방해꾼 노릇을 할 때 무력감 때문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기대하지 않던 무명의 성도가 전정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모두 힘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동력이 되었던 것을 미련한 종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감수했듯이, 바울은 질병도 은혜의 가시로 알고 참고 견디었듯이 그것이 단 것이든 쓴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한 최상의 메뉴로 알고 감사로 받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창조의 날에도 낮과 밤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우리 위해 있었듯이 형통과 곤고는 둘 다 은혜로운 선물로 알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못 다한 충성과 미치지 못한 사랑을 아쉬워하고 나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하면서 여한이 없이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행20:32)

목사 이종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정년은퇴감사예배

원로 · 공로목사 추대감사 및 고희기념 논문집 헌정식
12월29일(수) 오후7시 – 본당

이종윤 목사 정년은퇴 감사예배와 원로 · 공로목사 추대감사 및 고희기념논문집헌정식이 12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드려진다. 이종윤 목사의 성역 36년과 서울교회 사역 20년을 마감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기념사진촬영은 당일 오후 6시부터 하며 촬영순서는 오른쪽 상단 도표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성도들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

복장은 남성은 흰색 셔츠에 진한 양복으로 하고 여성들은 한복 차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는 이날 참석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주차장 문제로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 교회 주차장 외에 대곡초등학교 운동장도 이용하기 바란다. 또한 코람데오는 교구간사실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부 서	일 시
당 회	6시
살롬권사회	6시 5분
1, 2 권사회	6시 10분
1, 2 스데반회	6시 15분
여전도회	6시 20분
남선교회	6시 25분
예배맡으신 분	6시 30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6일 1부예배
대학부, 청년1, 2부	26일 3부 예배

이종윤 목사 정년은퇴감사예배기념사진촬영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

2011년 1월1일 0시 본당

201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1일 0시 본당에서 시작된다.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이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30분 소등이 되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인터넷(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seoulchurch.or.kr 메인화면⇒송구영신예배 생중계)으로 예배에 참여가 가능하니 해외에 나가있는 성도들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못하는 성도들은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란다.

박노철 목사를 설교목사로

우리교회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 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2011년 순결서약식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1년 순결서약식이 1월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해당자는 12월31일(금) 오후7시30분부터 10시까지 열리는 오리엔테이션과 학생과 학부모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순결서약을 한 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항존직 은퇴 및 장로안식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주님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울교회 은퇴집사와 은퇴권사로 모시게 된다. 오늘 저녁 은퇴하시는 분들은 김영주, 류장렬, 유 신, 황정욱 집사, 김명숙, 양옥자, 윤문자, 임귀순, 전행자, 조순엽, 최향봉 권사이다. 또한 2011년 한해 동안 안식년을 갖는 장로는 김영준, 성준경, 이영기 세 분이다.

2011년 청지기 수련회

주제 : 행복한 청지기(눅5;1~11)
1월3일(월)–8일(토) 새벽5시 본당에서

2011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행복한 청지기"(눅5:1-11)란 주제로 1월 3일(월)~1월 8일(토)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박노철 목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으로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건강, 영혼구원, 영적성장, 일터, 가정을 위해 각 요일별로 특별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 바란다.

구 분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5:00~ 5:45 (본당)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설교 : 박노철 목사)					
	청지기의 부흥	청지기 사역태도	청지기의 순종	청지기의 공로의식	청지기의 비전	청지기의 영적예배
5:45~6:20 (101호)	예배위원및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 (노헌상 목사)	섬기는 자의 사명과 자세 (유문건 목사) 2011 선교 일꾼의 자세 (박진아 목사)	2011 전도전략방향 (장석남 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 봉사 (서명철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 광 목사)
대상	예배위원 찬양대원	장로,권사,집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순례자, 차량, 식당,직원	교회학교 교사

2010 수서경찰서교회 성탄축하예배

지난22일(화) 수서경찰서에서 성탄축하예배가 있었다. 수서경찰서 신우회원 섹소폰팀의 캐롤 연주와 서울드림싱어즈의 찬양공연이 있었고, 이종윤 목사는 "성탄절에 주신 4가지 선물"(이사야 9:1-7)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다.

2010 10대뉴스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이종윤 목사 원로, 공로목사 추대**

이종윤 목사는 11월 9일 서울강남노회 제47회 정기회에서 총대 전원 만장일치로 서울교회 원로목사, 서울강남노회 공로 목사로 각각 추대됐다. 이 목사의 원로,공로목사 추대는 4월 7일 당회와 8월15일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에 청원한 것이다.

*** 이종윤 목사와 김창인 목사, 20년만의 상봉**

이종윤 목사는 1월 14일 충현교회 원로목사인 김창인 목사(94)를 찾아가 20년 만의 감격적인 해후를 하고 사제지간의 막혔던 담을 헐었다.

김 목사는 이 목사의 요청으로 5월 9일 어버이주일 우리 교회 찬양예배때 강단에 올라 설교를 했고, 이를 계기로 교인들은 서울교회 창립 당시에 얽힌 슬픈 기억을 새삼 씻어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 이종윤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명예신학박사학위 취득**

이종윤 목사는 5월 27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적인 보수 신학의 요람 웨스트민스터 신대원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실로 장로교 신학교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장신대 신대원에서 동시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국 목회자 가운데 이종윤 목사가 유일하다.

***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주관**

우리 교회는 장신대와 함께 에든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6.22일-24)를 개최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를 주제로 우리 교회 KIMCHI와 한국로잔위원회, 한국기독교학술원 등 7개 단체가 '한국연합선교회'를 구성하고 연합으로 주관한 이 대회는 국내외 선교학자와 선교사 등 4백여 명이 참석하여 세계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했다.

*** 2010 장로교의 날 행사와 '1교단 다체제' 제안**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종윤 목사, 이하 한장총) 주최 두 번째 장로교의 날 행사가 7월 10일 한장총 소속 28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종윤 목사가 제안한 '1교단 다체제' 제안은 큰 반응을 일으켜, 이후 9월 16일 예장 9개 교단의 연합 총회 결성과, 10월25일 3개 교단의 통합 선언 등 교단내 연합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칼빈길' 추진 1년여 만에 결실**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칼빈길' 명예도로명 부여 작업이 추진 1년여 만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교회 앞길(삼성로 서73길)을 칼빈길로 명명되도록 관할구청에 명예도로명 부여신청을 했으나,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됐다가, 11월 9일 주민 여론 재조사 결과 76%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마침내 12월 2일 '칼빈길' 표지판이 교회 앞 진입로에 설치됐다.

*** 로잔운동 제3차 대회에서의 활약**

로잔복음화운동 제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2010'이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전세계 190여개국 교계지도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아프리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이종윤 목사는 로잔운동의 핵심기구인 Global Think Tank 멤버로 참여하여 각 분야에 걸쳐 복음주의적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로잔 3차 대회는 킴치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다녀간 수많은 각국 교회 지도자들을 재회하며 높아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자리였다.

*** 칼빈의 『기독교강요』강해**

2010 사명자대회 기간중 11월1일부터 27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이종윤 목사가 요한 칼빈의『기독교강요』를 강해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갈파하여 올바른 신앙체계를 제시하는 '기독교 강요'는 신앙인에게 매우 소중하면서도 접하기 힘든 기독교 고전이다. 이종윤 목사는 이 '기독교강요' 전체를 해설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평생 한 번 맛보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를 선사했다.

*** 신학 학술연구지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창간**

세계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성장과 갱신의 실제적 적용을 연구, 확산시켜 온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원장 이종윤 목사)이 지난 3월 개교회로선 보기 드물게 학술연구지를 창간했다.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계 교회에 나눠주며 우리의 좋은 점 뿐만아니라 약점도 분석, 비판하고자 한 이 학술지는 세계 유수의 신학대학원과 도서관 등에 기증됐고, 예약 구독 신청이 쇄도했다.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출간**

설립 후 20년에 이르는 서울교회의 역사와, 이종윤 목사의 목회여정을 다룬 역사서『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이『순례자』편집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1년 6개월의 편찬작업 끝에 마침내 발간을 하게됐다.

선교지 소식

성탄절의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손신일 · 민매라 선교사 (체코)

Vesele Vanoce!

체코 프라하에서 성탄절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12월에 들어서면서 추운 날이 계속 되어, 눈에 파 묻힌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시내 중심 구시가 광장에는 대강절이 시작하면서 Christmas Market가 들어서고, 커다란 Christmas Tree도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놓여 있는 체코는, 일찍이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14세기 말부터 교회개혁을 주도한 후스의 영향으로 개신교파가 늘었습니다만, 17세기의 종교전쟁에 패배하여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 아래 카톨릭을 강요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민족부흥 운동으로 개신교가 살아났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권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신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České Vánoce

하지만, 성탄절은 국민 전체의 축제로 남아 있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가정에서 즐겨 먹는 요리는 잉어 요리입니다. 바다가 없는 체코는 옛 부터 연못을 만들어 잉어를 양식해 왔습니다. 성탄절에 잉어 요리를 먹는 습관은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에는 잉어 장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체코의 연말 풍물시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개신교에 속한 저희 Kobylisy교회에서는, 체코 성도들이 24일 늦은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박해의 세월을 거쳐 온 개신교회의 성탄절 예배는 카톨릭 교회의 예배와 또 다른 분위기와 은혜가 넘쳐 있습니다.

체코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성탄절의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순결서약식

순결한 가정

이근대 집사(12교구)

1999년 서울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복도 주시고 그 복으로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2001년 순결서약식을 하며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며 순결한 가정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혼전순결의 귀한 의미를 말씀으로 알게 하신 그 때가 청년시절을 많은 유혹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또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서약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귀한 딸 수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책임감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아내와 저 그리고 수아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결의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 견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결서약식의 때 많은 어린이, 학생, 청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서약하시게 됨에 주님의 축복이 평생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 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은희 집사(12교구)

1995년 첫 순결서약이 있던 해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고 막연한 듯 했지만 내 손에 끼워진 반지는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서약 후 15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그때의 순수한 믿음과 소망대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약속이었음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지켜가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할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서약할 때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또 다시 기대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그 기다림과 바램이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듯이 우리자녀도 서울교회에서 순결서약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송년음악회

찬양위원회(위원장:박정선장로)는 2010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송년음악의 밤을 준비한다.

12월 31일(금)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본당에서 진행되는 송년음악회는 기악과 성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멘관현악단(지휘:임범창 집사)의 서곡을 시작으로 테너 류충기 집사(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소프라노 박나애 성도(할렐루야찬양대원)의 독창과 김정아,최유현 성도(가브리엘찬양대원),신모란 성도(할렐루야찬양대원)의 여성 3중창, 미리암여성선교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곽지승(플루트), 박선영(바이올린),이주희 성도(피아노)의 플루트3중주의 연주가 은혜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2010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12월18일(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거행 되었다.

이종윤 목사원로 · 공로목사 추대축사

이종윤 목사의 신실한 생애를 감사합니다

손봉호 목사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이종윤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눈앞에 환하고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벌써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흔히 어떤 직임의 임기를 마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대과 없이"란 것인데 큰 허물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하는 것은 그 동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처럼 성도들이 모두 아쉬워할 때 떠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종윤 목사님은 나의 웨스트민스터 후배이지만 처음 만난 것은 1970년 후반 아세아연합신학원에서입니다. 그 때 내가 발견한 것은 그가 매우 유능한 행정가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로부터 모든 일에 깔끔하지만 학교 행정도 매우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나는 행정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명색이 교무처장이었지만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는지를 전혀 몰라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목사가 그 흩어진 서류들을 척척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고 탄복했습니다.

1979년 나는 연구교수로 1년 간 네덜란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1975년에 창립한 서울영동교회의 설교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교인들의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마침 그 때 아직도 교회를 맡지 않고 있던 이종윤 박사께 1년간 서울영동교회 설교를 부탁했고 살던 집도 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귀국해 보니 내가 떠날 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잘하는 이 목사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서울영동교회의 사역과 성장에 이종윤 목사의 공헌이 적지 않습니다.

그 후 이 목사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영동교회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그 교회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목회해도 되는지 나와 의논하러 찾아 왔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 코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그렇게 미안해하는 이목사가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목사는 그 뒤에도 장애인 교육과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근 30년 간 장애인 운동을 한 나는 "장애인에 관심을 가진 목사는 무조건 좋은 목사"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국 신학에 소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 거두면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김상복 목사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내가 이종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6.25 휴전 직후,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종윤은 충현교회의 학생회 임원이었고 나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흥천교회 학생회 임원이었습니다. 두 교회 학생회는 종종 교류를 하며 때로는 함께 응변대회나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도 이종윤은 잘 생긴 얼굴에 다소 근엄하고 반듯하고 정중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이종윤의 그 반듯한 모습은 평생 변치 않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하셔서 신학과 목회의 길로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고, 석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가 전통적 복음주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였고, 영국으로 건너가 최종 학위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본래의 철저한 신앙과 복음적 신학에 근거하여 이미 대부분 세계 학자들이 받아드리고 있는 복음서의 Q 문서설에 대한 신랄한 학문적 비판을 가하는 보기 드른 용기를 보여주시며 불확실한 신학적 이론으로 신학계와 교계를 어지럽히는 학자들에게 소신 있는 학문적 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신대 교수 시절 이 목사님이 대치동에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여 한참 개발되고 있던 강남지역에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그가 학계와 교계의 두 날개를 펼치며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신학자, 목회자,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훈련되고 잘 준비된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신학계와 대학교를 섬기실 뿐 아니라 아시아 신학계와 교계도 동시에 섬기셨습니다. 아시아복음주의연맹(EFA)와 아시아신학연맹(ATA)의 이사로 폭넓은 사역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과 미국의 신학대학원 연구교수로서 꾸준히 자신의 학자적 칼이 녹슬지 않도록, 또 기독교계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은혜의 행진입니다.

학문과 목회와 리더십으로 완성되신 이종윤 목사님, 특별히 많은 은사와 은총을 한 몸에 받아 충성스럽게 헌신해 오신 한 분 이종윤 목사님, 어린 시절 만난 신실한 한 친구에게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한 평생 바라보면서 감회가 깊고 선하신 손길을 이 목사님에게 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저절로 솟아오릅니다.

이응선 장로 (서울교회 원로장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지켜본 이목사님의 전 생애는 오로지 복음과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열열한 기도와 성경적 설교와 일관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교회를 목양 하시며 하나님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시며 향도하신 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들의 신앙의 아버지십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누명으로 유린당하고, 거룩한 성직마저 박탈했던 분들을 원망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한 어떤 정당한 권한도 행사치 않으시며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을 고대하고 묵묵히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사랑의 손을 먼저 건네시며 용서와 화해로 아가페의

참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이십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포기하시며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을 한번도 소유해보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통장 하나도 없는 강직하고 청빈한 종이십니다.

목사님이 1979년 중공땅 지하교회에 베풀던 성례식에서 저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휴전선 넘어 저 공산세계에서..."라고 축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노종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목사님은 제2의 칼빈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목사님의 예언자적 통찰력과 학자적 식견, 그리고 불타는 정열로 복음사역에 임하셔서 목사님의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많은 후학들에게서 제2, 제3의 이종윤 목사님이 나오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종윤 목사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후반기 전도상 · 주간성경공부 · 신앙강좌 1, 2 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전도상)

201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울교회에 등록하였다. 70인 전도대에 의한 전도등록 509명 (47.9%),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한 전도등록 231명 (21.8%), 본인 스스로 등록 322명 (30.3%)으로 총 1062명이 등록하였다.

우수 전도대자로는 임명숙 집사 조(129명), 박이선권사 조(123명), 전하미권사 조(27명), 이유희집사 조(27명), 최성희집사 조(25명), 윤숙지권사 조(20명), 박길희집사 조(19명), 이소연성도 조(19명), 박광일목사(12명), 박정임권사 조(12명), 권영월권사 조(11명), 오정수장로(10명) 등 이며, 이 외에도 많은 전도대원들과 성도들이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에 교회는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70인 전도대원과 성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시상을 한다. 임명숙 집사에게는 전도왕 패, 박이선 권사에게는 전도대상 패를 수여하며, 우수 전도자에게는 전도상을, 전도의 열매를 맺은 이들에게는 이종윤 목사님의 저서 한권씩을 격려의 상으로 수여한다. 명단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구내서점에서 원하는 책으로 수령하기 바란다.

강수남 강승웅 강윤경 강창숙 고경순 고아라 곽미숙 곽선자 곽태순 구희숙 권영월 김경숙 김경숙 김경진 김광신 김규희 김동진 김명심 김명옥 김미성 김병호 김보경 김상태 김선희 김성미 김수원 김수진 김숙자 김숙자1 김애순 김양숙 김연화 김영식 김영애 김옥순 김용숙 김용애 김용환 김은숙 김은순 김은주 김은효 김은희 김인실 김점숙 김정길 김정두 김정순 김정호 김정희3 김진희 김태영 김현주 김혜영 김홍두 김희순 남정열 남현주 노인숙 노정숙 노진아 류기정 박경정 박광일 박길희 박명희 박문자 박미경 박미숙 박분옥 박순복 박영애 박 옥 박윤자 박이선 박정순 박정임 박종건 박천희 박춘명 박희래 배정자 배준길 백명자 서경애 서수녀 서순희 서은영 서현정 석상화 손성실 송인권 신금전 신동산 신명희 신선주 신은숙 안명심 안재선 안준홍 안현식 양재벌 여현진 오은숙 오은이 오준엽 오충례 옥희숙 우원항 원복순 원세경 위성남 위현주 유경희 유경희1 유묘종 유슬기 유하영 윤계진 윤석원 윤석호 윤숙지 윤주현 윤현미 은기장 이귀숙 이규희 이금순 이길재 이길희 이명아 이문자 이미연 이민숙 이삼순 이소연 이수경 이승언 이승자 이양선 이영미 이영수 이옥심 이우진 이원희 이유성 이유희 이은자 이은희 이인보 이인숙 이자혁 이재순 이점숙 이정연1 이창희 이천애 이태승 이현미 이현숙 인찬희 임광우 임동욱 임명숙 임선영 임순자 임정호 장기숙 장동숙 장성자 전매애 전연수 전하미 전행자 전현주 정경자 정기자 정미애 정미연 정민교 정민자 정복순 정수경 정애신 정연택 정재연 정정숙 정종순 조 희 조영자 조정옥 주동재 주화인 진경자 진경자 진교인 최금봉 최금봉 최미희 최성희1 최성희3 최원석 최윤진 최정환 최지연 표현희 한민아 한상준 한성현 한현숙 한홍연 함정희 허경화 허현숙 허형숙 현승희 현혜성 홍건표 홍광숙 홍성혜 홍순석 홍정란 황정아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1교구 김선자 백명자 이소명 홍순복

2교구 배은희 안창휘 오충례 유근종 윤현만 원복순 이승선 정봉금 최형열

3교구 김순원 배재송 손병석 이경규 이순례 이채봉 이해순 임분도 전정숙 탁경준

4교구 김복녀 김혜경 유기찬 유명석 이승민 이승희 이자혁 원용범 이현숙 최종희 홍광숙

5교구 이순창 이광열 이윤영 임범창 임선철 최소희 최학인 박창희

6교구 강영순 김경옥 김숙자 김대응 서영세 임순자 유을상 엄정순 이영희 이원희 이춘실 함은희

7교구 김숙행 김영례 김태기 손명근 오영자 정연택 정정희

8교구 임윤자 오후근

9교구 김명화 김진숙 박이선 송옥혜 유신 이부자 임낙식 장명순 문순자 조상희 한옥순

10교구 여현진 윤찬오 이동찬 이점숙 이혜선 최무순

11교구 김양숙 나옥녀 이민화 이경희 전배호 조정옥

12교구 강희자 김인순 김형택 남정열 송성식 양숙란 윤정식 이동수 정희순 최근자

13교구 김미성 김동진 김영식 김애순 김희순 김정애 박성희 박미경 서은석 오정숙 이금순 주화인 최금봉 홍건표

14교구 김옥순 원명희 이명순 정미연 최낙준 최태욱

15교구 김경희

16교구 강석조 김명숙 송경옥 이규희 장양일 정복순 정정숙 임송자 최규초 최금자 이상호 한경신

(신앙강좌1부)

이덕빈 신종현 이동수 양기석 최명남 김규환 강택근 안창휘 이상호 윤찬오 김은태 노제현 김정희 강윤희 김자경 김신애 최화옥 이부자 나옥녀 정연택 이현숙 윤정식 원명희 홍광숙 이강인 이수자 남상경 정봉금 이재순 홍승전 총30명

(신앙강좌2부)

서영숙 고영숙 안선광 이태원 윤형준 김경애 김성환 김찬진 박은영 안인호 안준홍 김영주 박광수 박인규 이갑수 이인수 황정욱 박상운 김영화 김현관 이종창 한선현 서은석 김미성 이창희 진영숙 김정숙 김영경 신호영 김설아 김미경 최영경 김수경 김지은 유덕자 최향숙 윤 운 김은숙 장호영 김해수 백명자 조복자 박복순 박화실 송행희 곽 숙 김난희 최정순 이해순 한춘홍 유관모 김사라 오세백 오민세 이광배 조소량 황선옥 김정순 김웅기 이옥선 황병석 양귀식 김성수 김영수 김상태 김경희 김홍기 박정란 박희석 이민숙 표현희 오가연 강창숙 정철환 전미애 배동금 박덕호 김순덕 조민자 신성균 총80명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구민영성도 (임마누엘찬양대 솔리이스트)의 독창으로 드린다.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쿨 특별상 수상등 다수의 국제콩쿨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 가수로 있으며 동서대학교,부산예고, 강원예고에 출강중이다.오늘은 '주의 기도 (G.Grier & L.Everson편곡)' 등 세곡을 하나님께 드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월) – 28일(화) 웨스트민스터 한국 총 동문회 세미나와 총회를 소집한다. 30일(목) 한장총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 이사: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7교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2차 A동 301호

■ **주간 식당 봉사**: 리브가전도회(12.26) 제1스데반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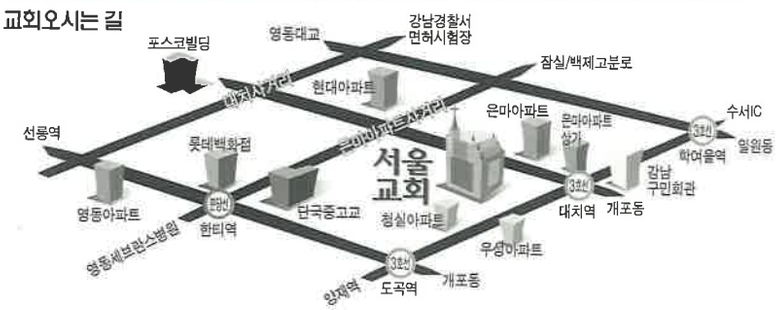
■ **금주의 식사**: 민순구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4. 연말 연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5. 정년 은퇴를 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